

오늘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역사에서 일상으로

(10) 훼손 심각한 5·18 유적지

이끼 끼고 쓰레기에 묻히고... 기억도 함께 녹슬어간다

<목 차>

제1부 5·18진상규명, 마지막 기회

제2부 5·18폭력은 현재진행형

제3부 오월정신의 계승

31개 사적비 대부분 관리없고 방치
칠 벗겨지고 주변엔 담배꽂초 수북
광고판·바리케이트에 가리고
안내판·이정표도 없어 찾기 힘들어
광주시 내달까지 훼손 시설 집중보수

5·18이 불혹을 맞았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의 기억 속엔 아직도 생생이 1980년 5월의 그날이 남아있다.

기억은 그대로지만 당시의 현장은 세월의 시간을 빚겨가진 못했다.

1980년 당시 광주의 피로 물들여진 5·18의 현장은 왜곡과 폄훼와 함께 40년의 세월동안 없어지거나 많은 부분들이 변경돼 우리의 기억에서 서서히 지워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적지는 옛 전남도청으로 현재 다시 복원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는 이러한 5·18의 중요 사적지 총 29곳을 선정, 이 장소에 오월 그날의 현장 사적비(표지석) 31개를 세워 보존하고자 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정작 5·18 사적지 관리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18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BTS(방탄소년단) 팬 등 외국인들까지 찾고 있다는 점에서 5·18 사적지에 대한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지난 7일 대표적 사적지로 5·18 당시 부상자들을 헌신적으로 치료한 옛 광주적십자병원을 비롯한 당시 시민군과 계엄군의 격전지이자 시민 고문 수용장소였던 옛 광주교도소 및 광주YWCA 옛터, 녹두서점 옛터, 광주MBC 옛터 등 7곳을 방문한 결과 대부분 관리가 부실했다. 대다수 사적지들은 철이 벗겨지고 검은 때가 끼고, 주변에는 주변엔 담배꽂초와 쓰레기가 여기저기 버려져 있는 등 지저분한 상태였다.

◇옛 광주적십자병원=광주시 동구 불로동 옛 광주적십자병원(제11호)은 폐허 그 자체였다. 이곳은 5·18 민중항쟁 당시 '광주적십자병원'으로 부상당한 시민들과 시민군을 치료하고 돌본 곳이었지만, 사유지인 탓에 관리가 어려워 방치되고 있었다. 또 사적비 인근 담벼락에는 '위험'을 알리는 안내판이 부착된 전기 변압기 등이 설치돼 있어 찾아보기도 힘들었다.

지난해 광주적십자병원이 민간에 매각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5월 단체들의 요구와 사적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여론이 잇따르자 광주시는 고민 끝에 매입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광주적십자병원을 소유



광주시 동구 대의동 광주YWCA 옛터 앞에 설치된 사적비가 영어학원의 광고판과 바리케이트에 둘러싸여있다.



광주시 북구 문흥동에 위치한 5·18사적지 제22호인 옛 광주교도소 앞에 설치돼 있는 사적비와 오월길 조형물이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다.



광주MBC 옛터에 설치된 사적비에 녹이 슬어있다.



광주시 동구 불로동 옛 광주적십자병원 인근에 설치된 오월길 조형물 앞에 차량방지턱이 버려져 있다.

한 서남재단청산인척이 '89억원(감정가)+a' 라는 막대한 매각가를 요구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옛 광주교도소=옛 광주교도소(제22호)는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이 주둔한 곳이다. 광주에서 담양·순천으로 가는 길목이어서, 이곳을 지나던 많은 시민들이 계엄군의 무차별 총격을 받아 희생된 곳이기도 하다. 이때 계엄군에게 끌려간 시민들이 고문당하고, 이 과정에서 사망한 희생자들의 시신이 인근 야산에 매장되는 아픔을 간직하는 곳이다.

광주시는 이곳을 5·18사적 제22호로 지정해 5월의 역사를 기리고 있고, 사적임을 알리는 사적비를 1998년 세웠다.

이날 찾은 사적지 주변에 버스승강장과 택시승강장이 있고 커피자판기까지 놓여진 탓에 자연스럽게 휴먼구역이 되면서 사적지 주변에 담배꽂초와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사적비 뒤로는 건설자재들이 쌓여 있었고 부서진 비닐 우산 1개가 방치돼 있는 등 사적지로 보기가 어려웠다.

◇광주YWCA 옛터= 5·18 당시 광주 YWCA 건

물이 있던 광주시 동구 대의동 YWCA 옛터(제6호)는 돌불야학 청년들이 민주시민회보를 제작해 광주소식을 전국에 전했으며, 민주인사들이 시민들의 희생을 막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가진 곳이다. 지난 7일 찾은 광주YWCA 옛터에는 토익학원의 광고판들이 사적비에 기대 있었다. 심지어 사적비 앞에는 주차를 막기 위한 바리케이트가 설치돼 접근은커녕 사적비 자체를 제대로 보기조차 힘들었다.

◇광주MBC 옛터=5·18 당시 광주시 동구 궁동에

는 MBC(광주문화방송)이 있었다. 당시 군부의 검열을 받은 언론은 계엄군의 과잉진압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결국 1980년 5월 20일 밤 시민들은 진실을 보도하라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MBC건물에 불을 지르게 된다.

서원문 제등이라는 광주폴리 안에 설치된 사적비는 녹이 슬어 있었다. 오랫동안 방치된 때문인지 사적비가 설치된 폴리는 철이 벗겨지는 등 노후화가 심했다.

일부 사적지는 그나마 관리 상태가 양호한 편이 있지만 사적지를 찾기 어려웠다는 점은 모두 동일했다.

특히 광주시 동구 소태동의 주남마을 인근 양민학살지는 인근에 안내판이나 이정표가 잘 보이지 않아 찾기가 어려웠다.

오월단체도 5·18 사적지에 대해 정비 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문흥식 5·18구속부상자회장은 "현재 5월 3단체가 미래세대에게 어떻게 사적지를 활용하고, 5·18 역사에 대해 알릴지 콘텐츠 작업 등을 심도 있게 광주시와 협의중에 있다. 40주년을 앞두고 사적지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구상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사적지에 대한 관리 부실에 대해서도 광주시에 새롭게 문제 제기 중이다. 구속부상자회가 일주일일에 1차례씩 사적지 인근을 청소하고 있으나 비용과 인력면에서 열악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광주의 5·18단체가 최근에 홍콩 민주화 시위를 앞둔 5·18사적지를 점검한다. 대상은 1998년 1호로 지정된 전남대학교 정문 등 29곳이다.

시는 사적지 표지석과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5·18유공자가 안장된 구 묘역을 중점 점검해 훼손된 시설물을 다음 달까지 집중 보수할 계획이다.

/글·사진=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40살의 5·18, 이제 세계와 연대하자

최용주 5·18기념재단 비상임연구위원

40년 전 광주의 비극은 고립에서 비롯됐다. 신군부의 무지막지한 폭력에 의해서 광주시민들이 유린당하고 있을 때, 이 비극적인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국민들은 거의 없었다.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으니 사람들은 광주와 함께 할 수 없었고, 광주시민들이 보여준 숭고한 시민불복종 운동은 공산주의자들과 현실불만 세력이 자행한 폭동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었다. 광주의 비극은 고립에서 망각으로 이어졌고, 왜곡과 폄훼 그리고 조롱과 낙인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40년 전 광주는 반드시 외롭지는 않았다. 최소한 국제적으로는 그랬다. 필자는 2년 전에 5·18 관련 해외기록물을 발굴하기 위해서 미국

UCLA 대학 도서관에서 연구를 한 적이 있었다. 도서관에 엄청나게 많은 5·18 관련 기록물을 있었는데, 이 자료들을 검색하고 분석하다가 깜짝 놀랐다. 우리나라 그 어느 곳에서도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을 때, 미국과 일본, 유럽 등지에서는 거의 실시간으로 광주의 소식이 정확하게 전파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해외의 인권단체들과 활동가들이 광주의 소식을 전해 듣고 한국 대사관으로 물려가서 항의시위를 하고, 워싱턴의 백악관 앞에서 호소문을 돌리고, 교회에서 기도회를 열고, 모금을 하고, 한국과 광주에 연대와 위로의 편지를 보내는 다양한 연대 활동을 전개했다는 사실이다.

1980년 5월 20일, 미국 시카고의 인권단체는 광주 소식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고 시가행진을 하였고, 광주항쟁 기간 동안에 뉴욕, 로스앤젤레

스 등 미국 주요도시를 비롯하여 일본과 독일 등지에서 비슷한 유형의 활동이 연일 열리고 있었다.

광주가 무력에 의해 진압된 다음 날인 1980년 5월 28일에는 뉴욕 시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인 맨해튼의 리버사이드 교회에서는 광주 시민을 추모하는 특별 예배가 열렸으며, 이 예배에는 미국 내의 유명한 인권운동가들과 유력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하여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5·18 직후에는 미국, 유럽, 일본의 인권단체들이 광주를 방문해서 진상조사를 벌이고 미국 정부와 유엔 등에 신군부의 인권유린 행위를 적극적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말하자면 40년 전 광주는 국내적으로는 고립되었으나, 국제적으로 결코 외롭지는 않았던 것이다. 국제적으로 전개된 연대활동을 통해서 5·18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5·18의 이러한



최용주

지구화는 나중에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 신장을 요구하는 국제적 압력으로 발전했으며, 결과적으로 전두환 정권은 1987년 6월항쟁에서 국제사회의 감시를 의식하여 군대 동원

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40살이 된 5·18민주화운동은 당시에 국제사회가 광주에 보내준 연대와 후원에 보답할 때가 되었다. 40년 전 광주가 겪었던 비극적인 국가폭력 사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이 지구촌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시리아 내전에서, 미얀마 로힝아 난민 사태에서, 스리랑카의 종교분쟁에서, 홍콩의 민주화 시위에서,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오늘도 폭력적인 국가세력과 테러 조직들에 의해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당하고, 실종되고, 납치당하고, 성폭력을 당하고, 불법적으로 체포되고 추방

당하고 있다. 40살의 5·18은 이제 이들과 연대하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해야 한다.

사실 광주는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다. 5·18기념 기간 중 매년 광주에서 열리는 "광주 아시아 포럼"은 아시아 지역의 인권운동가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연대하면서 공동의 미래를 모색하는 국제 인권네트워크의 허브로 발전해왔다. 광주가 매년 수여하는 광주인권상은 아시아 인권운동과 정치발전을 자극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가 됐다. 광주의 5·18단체가 최근에 홍콩 민주화 시위에 보낸 메시지는 40년 전 해외의 인권단체가 광주에 보냈던 연대의 정신을 반추해 해서 감동적이었다.

이제 40살의 5·18은 이러한 국제연대 활동을 단순한 의례가 아닌 새시대를 맞이하는 5·18 정신으로 정착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이 보여준 경이로운 공동체적 협력과 대동정신은 지구촌 곳곳에서 국가폭력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는 민중들의 삶에 보내는 연대와 후원을 통해 실현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이제 광주시민이 국제사회에 진 빚을 갚는 가장 선한 방식이다.